

삼척 미로단오제의 현재와 그 문화재적 가치

The Present State and Cultural Property Value of "Miro Danoje" in Samcheok

최 윤* · 정용건**

국문요약 본고는 2023년 치러진 삼척시 미로면 미로단오제의 행사 개요 및 절차, 의의를 살피고, 그것이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2023년 미로단오제는 기존에 하루 일정으로 열렸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 일정으로 규모를 확장해 치러졌다. 이는 미로단오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무(主巫) 김종식 무당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무녀(巫女)와 악사(樂士)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 이외에도 민속놀이, 체험 부스, 가요제 등의 부대 행사를 마련하여 마을 주민 및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2023년의 미로단오제는 기존에 비해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층 풍성해진 면모를 보였지만, 한편으로 단오굿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단오굿과 부대 행사와의 조화, 진행상의 미비점 등 몇몇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한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미로단오제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미로단오제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동해 지역의 주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이를 지역 행사 차원에만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공인을 받도록 하는 작업 또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정으로서, 현행 무형문화재 정책과의 정합성 고찰, 오금잠제 및 지역 민속 행사와의 관계성 탐색, 미로단오제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미로단오제, 삼척시, 미로면, 무형문화유산, 오금잠제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BK21사업팀 선임연구원(제1저자).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BK21사업팀 선임연구원(교신저자).

1. 서론
2. 2023년, 미로단오제의 현재
3.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
4.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치러진 ‘2023 삼척 미로단오제’를 대상으로 그 전승 현황과 의의를 살피고, 미로단오제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를 고찰한 글이다.

미로단오제는 매년 단오절 삼척시 미로면에서 치러지는 행사이다. 이는 삼척의 전통 축제였던 ‘오금잠제(烏金簪祭)’에서 유래한 것이라 일컬어지며,⁰¹ 미로 단오굿, 미로단오제라는 명칭으로 이 지역에서 연행된 것은 적어도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미로단오제는 삼척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전승되어 온 지역의 주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 존재 양상과 의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어 왔다. 강릉단오제가 동해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서 공고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근래에는 지역민들의 노령화, 굿에 대한 관심 약화 등의 이유로 인해 축제의 장기적인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로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

01 이창식, 「단오굿 놀이에 대하여」, 『실적문화』 5, 삼척문화원, 1994.

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현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곧 미로단오제와 단오굿의 절차와 진행 방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며, 그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드러내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2023년 치러졌던 미로단오제의 행사 개요, 제의 절차, 부대 행사, 의의와 한계 등을 정리해 기록하고, 나아가 그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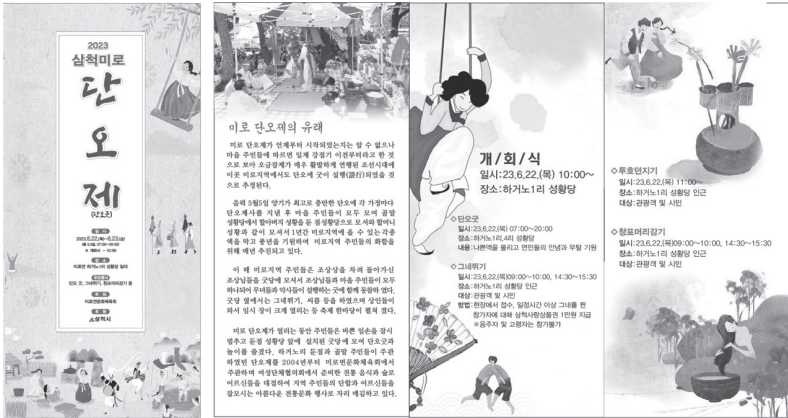
2. 2023년, 미로단오제의 현재

2023년에 진행된 ‘미로단오제’는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로면문화체육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로 단오굿은 물론 그네뛰기·씨름·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각종 부스 체험, 가요제 같은 부대 행사 또한 다채롭게 마련되어 마을 주민 및 외부 관객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기존에 하루만 진행되었던 행사를 이틀 일정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띄는데, 규모의 확대를 통해 미로단오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일정표에 따라 미로 단오굿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전에는 보통 이른 아침 시작하여 늦은 저녁에 모든 굿이 마무리되었는데, 이번에는 ‘1일차 오전/오후~2일차 오전’의 일정으로 분산되어 치러진 것이다.

이번 단오굿은 주무^{主母} 김종식 무당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무녀^{巫女}와 악사^{樂士}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⁰² 삼척시 근덕면 출신인 김종식 주무는



2023년 삼척미로단오제 홍보물(출처: 삼척시청)

오랜 기간 동안 강릉과 삼척 일대에서 무업巫業을 행해 온 무당으로서,⁰³ 이전에도 이옥선 무녀 등과 함께 미로 단오굿에 참여한 바 있었다.⁰⁴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되었던 미로 단오굿이 작년 2022년 재개되면서 굿의 주무를 맡았는데, 올해도 작년을 이어 전체 굿 행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 단오굿 제의 절차

2023년 미로 단오굿의 굿거리는 크게 “부정굿 → 성황굿 → 산신굿 → 조상굿 → 축원굿 →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 → 세존굿 → 성주굿 → 작두굿 → 뉘동이굿 → 제면굿 → 꽃노래·뱃노래·등노래 → 거리굿” 등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⁰² 참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식(59년생), 김은심(75년생), 황금미(74년생), 최재복(58년생), 김미순(61년생), 이분옥(66년생), 이정임(53년생), 박용원(65년생), 황미순(75년생), 이은화(79년생), 김정국(68년생), 이원석(90년생), 허연옥(45년생).

⁰³ 윤동환, 『삼척 단오굿』, 삼척시립박물관, 2018, 105~118쪽.

⁰⁴ 김종식 주무는 2008년 미로 단오굿에도 참여하여 세존굿, 뉘동이굿 등을 주재한 바 있다.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2023년 미로단오제/ 미로 단오굿을 주관한 무당과 제관들

www.kci.go.kr

이 중 ‘부정굿’부터 ‘제면굿’까지는 축제 1일차에, ‘꽃노래·뱃노래·등노래’부터 ‘거리굿’까지는 2일차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연행된 각 굿거리를 순서대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일차』



2023년 삼척 미로 단오굿제의 순서

① 부정굿 (22일 오전 7시 / 김종식 구연)

부정굿은 단오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굿당 정화, 즉 굿당을 ‘신을 좌정시키기 위한 신성한 시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통상 주무가 신칼을 쥐고서 춤을 추고 무가를 부른 뒤 물부정을 통해 굿판의 부정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⁰⁵ 주무는 오전 7시부터 둔점에 마련되어 있는 성황당에서 부정굿을 연행하였다.

② 성황굿 (오전 7시 50분 / 김종식 구연)

부정굿이 마무리된 뒤, 무당과 제관들은 둔점 성황당에서 트럭을 타고 골말 성황당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준비해 온 제수를 성황당 제단에 진설한 뒤 성황굿을 시작하였다. ‘서낭굿’이라고도 불리는 성황굿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성황신에게 굿의 시작을 알리고 신을 굿청으로

⁰⁵ 윤동환, 앞의 책, 72~73쪽.



성황당을 오르는 무당과 악사들



골말 성황당의 신위와 제물 진설



성황굿을 연행하는 주무와 악사들



신위에 절을 올리는 제관들



서낭대를 잡고 이동하는 무인들



서낭대를 잡고 이동하는 제관

모셔오기 위한 절차이다.⁰⁶ 하거노4리에 마련된 골말 성황당에는 중앙의 성황대신신위城隍大神神位, 좌측의 단군대왕신위檀君大王神位, 우측의 토지신신위土地之神神位 등 3개 신위가 모셔져 있다. 성황굿이 시작되자 제관 및 근처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굿을 구경하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으로 별비를 제단에 올리고 재배하기도 하였다.

골말 성황당에서의 굿을 마친 뒤 무당 및 제관들은 서낭대를 앞세우고 다시 둔점 성황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뒤 성황당 제단의 제물 진설을 마무리하고 9시 30분경부터 다시 성황굿을 진행하였다. 이 또한 둔점 성황당에서 굿이 시작됨을 성황신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③ 산신굿 (오전 9시 45분 / 김종식 구연)

성황굿에 이어 산신굿이 진행되었다. 산신굿은 마을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명산에 깃든 산신을 모시고 축원을 드리는 굿이다.⁰⁷ 산신굿의 구연 또한 김종식 주무가 맡아 진행하였다.

굿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 마을 주민은 무녀에게 별비를 주고 제단에 올라 재배를 올리기도 하였다.

④ 조상굿 (오전 10시 / 김종식 구연)

다음으로 연행된 것은 조상굿이었다. 조상굿은 마을과 각 가정의 조상들을 위해 치르는 굿으로, 일반적으로 축원 무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⁰⁸ 조상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마을 주민들은 굿당 옆으로 올

06 윤동환, 앞의 책, 73쪽.

07 윤동환, 앞의 책, 80쪽.

08 윤동환, 앞의 책, 82쪽.



둔점 서낭당에서 굿을 연행하는 장면



둔점 서낭당 근처에 모인 주민들

라와 개인 소지를 올렸다.

⑤ 축원굿 (오전 10시 15분 / 김종식 구연)

이어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굿이 진행되었다. 굿이 종료된 뒤에는 오십천 가에 마련된 무대에서 미로단오제 개최식이 열렸다. 개최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하여 삼척시 및 미로면



색동옷을 입고 굿을 연행하는 주무



성황대를 잡고 공수를 내리는 주무



제단에 절을 올리는 삼척 시장



개회사를 하는 삼척 시장

www.kci.go.kr

의 여러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단오제의 의미를 밝히고 그 성공을 기원하였다.

⑥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 (오전 10시 50분 / 김종식 구연)

개회식 이후에는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이 진행되었다. 이 굿은 이전 단오제에서는 연행되지 않다가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것이다. 김종식 주무가 굿거리를 주재하였는데, 어린 돼지를 삼지창에 꽂아 세우는 광경에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였으며 돼지에 별비를 붙여 복을 기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이 종료된 뒤에는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는 미로면 부녀회에서 마련해 제공하였다.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을 연행하는 장면1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을 연행하는 장면2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부녀회



점심 식사 장면

⑦ 세존굿 (오후 12시 5분 / 구연)

식사 이후에는 세존굿이 펼쳐졌다. 세존굿은 생산^{生産}과 수명^{壽命}을 관장하는 세존을 위해 행하는 굿으로, 일반적으로 서사무가 당금애기제^{석본}본풀이가 구연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주민들은 각 집안의 복과 자손 번창을 기원한다.⁰⁹

⑧ 성주굿 (오후 12시 20분 / 구연)

이어 성주굿이 연행되었다. 성주굿은 이는 집안의 주신인 성주를 모시고 행하는 굿이다. 일반적으로 성주굿에서는 성주신의 내력담을 담고 있는 성주본풀이가 구연되는데, 여기에는 대목을 구해 집을 짓고 살림살이를 불리는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¹⁰

⑨ 작두굿 (오후 2시 10분 / 구연)

다음으로는 작두굿이 진행되었다. 작두굿은 본래 동해안 북부지역 성황굿의 천왕굿에서 행해져 온 것이다. 본래 미로 단오굿 굿거리에는 작두굿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 이 굿이 함께 연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¹¹

작두굿은 이번 단오제에서 치러진 굿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굿이었다. 작두굿을 연행한 무녀는 청색 옷을 착용하고 무대에 마련된 각종 칼과 방울 등을 쥐고서 여러 무가를 구송하였다. 이어 무대 상단으로 올라가 작두를 타며 영험성을 보여주었다. 작두를 타고 나서는 제관과 주민들을 불러 모아 오방기를 뽑게 하고

09 윤동환, 앞의 책, 84쪽.

10 윤동환, 앞의 책, 84쪽.

11 윤동환, 앞의 책, 108쪽.



곳의 연행1



곳의 연행2



무가 가창



무당의 색동옷을 입고 함께 어울리는 제관

그 결과에 따라 공수를 내려준 뒤 별비를 받았다.¹²

⑩ 뉯동이곳 (오후 4시 10분 / 구연)

다음으로 연행된 것은 뉯동이곳이었다. 뉯동이곳은 일명 ‘군웅장수 곳’이라고도 하는데, 큰 힘을 지닌 군웅장수의 위력으로 액과 살을 막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곳이다.¹³ 이 곳은 무녀가 담당하였다. 무녀는 여러 무가와 놀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뒤 뉯동이를 물어 신력을 보여주었다. 제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력이 충만해진 뉯동이를 만지며 복을 기원하였으며, 이후 뉯동이를 바닥에 엎어놓고 제관을 앉힌 뒤 각종 살을 풀어주었다.

¹² 김도현, 앞의 논문, 72~73쪽.

¹³ 윤동환, 앞의 책, 93쪽; 김도현, 앞의 논문, 75쪽.



작두굿 설행을 위해 마련된 제단



작두굿을 연행하는 무녀



작두 위에 올라선 무녀



오방기를 이용해 재수를 봐주는 무녀



늑동이굿을 연행하는 무녀



늑동이굿 연행 장면

www.kci.go.kr

⑪ 제면굿 (오후 4시 50분 / 구연)

다음으로 구연된 것은 제면굿이었다. 제면굿은 무조신(巫祖神)이라 할 수 있는 제면 할머니를 모시고 위하는 굿이다. 일반적으로 이 굿은 제면 할머니가 무조신이 된 내력담을 서사무가로 풀어낸 뒤에 복을 상징하는 제면떡을 나눠주는 것으로 구성된다.¹⁴ 이 제면굿을 끝으로 단오제 1일 차 굿이 마무리되었다.



제면굿의 연행



제면굿의 연행

『2일차』

⑫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 (오전 9시 20분 / 김종식 구연)

2일차의 굿거리는 오전 9시 20분경부터 진행되었다. 먼저 연행된 것은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였다. 이는 단오굿 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송신의례로서,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전송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굿은 지화(紙華), 용선(龍船), 초롱등, 탑등(塔燈)을 권 상태에서 각 무구를 소재로 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구성된다.¹⁵ 이 굿거리는 김종식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¹⁴ 윤동환, 앞의 책, 90쪽.

¹⁵ 윤동환, 앞의 책, 95~96쪽.



꽃노래를 연행하는 김종식 주무



벚노래 연행 장면



등노래 연행 장면



베가르기를 행하는 김종식 주무

⑬ 거리굿 (오전 10시 30분 / 김종식 주무)

단오제의 마지막 순서로 거리굿이 진행되었다. 거리굿은 잡귀잡신에게 거리밥을 대접하기 위한 굿거리로서, 굿의 말미에 흑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⁶ 거리굿을 끝으로, 오전 11시경 단오굿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2일차에도 일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여 굿을 관람하였지만, 이틀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아무래도 굿의 전체적인 흐름이 끊긴 인상을 주었으며 관객 수도 1일차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 기타 단오제 행사들

이전부터 미로단오제에는 단오굿 이외에도 체육대회, 게이트볼, 민

¹⁶ 윤동환, 앞의 책, 98쪽.

요 공연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왔다. 이번 축제에서도 민속놀이, 체험 부스, 가요제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됨으로써 주민 및 관객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① 민속놀이

단오굿이 치러지는 둔점 성황당 바로 옆에는 씨름, 그네뛰기,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1일차 오후에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씨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미로초등학교와 미로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축제를 함께 즐겼다.



씨름대회



그네뛰기

② 체험 부스 운영

단오굿이 진행되는 둔점 성황당 옆 오십천 가에는 여러 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이전에 치러진 미로단오굿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시회’ 부스를 비롯하여 ‘신주빚기’, ‘지화(紙花) 제작’ 등 것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③ 가요제

이번 단오제 행사에서 주민과 관객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순서 중 하나는 바로 가요제였다. 가요제는 축제 2일차에 오십천 가에 마련된 무대에서 치러졌다. 단오굿이 모두 마무리된 오전 11시경에 예선전이 치러졌고, 점심 식사를 가진 뒤 본 경연이 치러졌다. 상금이 걸려 있는 만큼 마을 주민은 물론 외부 참가자 또한 적지 않게 참가하여 저마다의 노래 실력을 뽐냈다. 다만 2일차 행사의 전체 비중이 가요제 쪽으로 쏠리다 보니, 정작 본 행사라 할 수 있는 단오굿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2023년에 개최되었던 미로단오제 단오굿의 내용과 절차, 부대 행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어 우선 규모 면에서 이전에 비해 한층 확대된 모습을 보였고, 굿 이외에 주민과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대 행사가 함께 치러짐으로써 보다 많은 구성원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조성될 수 있었다.

다만 굿 연행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 외부 관객 및 젊은 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안내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행사인 단오굿과 여러 부대 행사를 보다 유기적으로 조화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굿 연행이 끝난 뒤에 무대를 무대 연행을 주관했던 무인(巫人)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본인들이 정리하는 모습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로단오제의 단오굿은 그 기원이 삼척 지역에서 오래도록 전승되어 온 ‘오금잠제(烏金簪祭)’에 있는 만큼, 삼척 성내동에서 치러지는 오금잠제와 미로 단오굿의 연관 양상을 규명하고 그러한 특성을 미로 단오굿에 녹여 연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제

로서의 대중성 확보'와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요약되는 이와 같은 지점들은 미로단오제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2023년에 진행된 미로단오제의 굿의 절차를 이전의 절차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귀옥	부정굿→서낭 모시기(납서낭)→화해굿→풀매기서낭굿→조상굿→세존굿→장군굿(눗동이굿)→손님굿→말명굿(제면굿)→대내림굿→꽃놀이·뱃놀이·등놀이→거리굿(길천)
신용철	부정굿→당맞이굿(청좌굿)→화해굿→조상굿→세존굿→성주굿→장군대감굿(눗동이굿)→손님굿→말명굿→꽃노래·뱃노래·등노래→대내림굿→거리굿
1995년	부정굿→당맞이굿→화해굿→조상굿→지신굿→세존굿→성주굿→손님굿→군웅굿→말명굿→화초굿(꽃노래·뱃노래·등노래)→제면굿→거리굿
2001년	부정굿→웃당맞이→청자굿→조상굿→세존굿→성주굿→손님굿→군웅장수굿→재민굿→말명굿→잔맞이→꽃노래·뱃노래·등노래→뒗거리
2008년	부정굿→당맞이굿→성왕굿→산신굿→조상굿→세존굿→성주굿→작두타기→놀이굿→눗동이굿→꽃노래굿→뱃노래굿→등노래굿→뒗전→화산→재고사
2010년	부정굿→당맞이굿→화해굿→산신·칠성굿→조상굿→세존굿→성주굿→손님굿→장군·대감·말명굿→꽃놀이·뱃놀이·등놀이→거리굿
2012년	부정굿→당맞이굿→화해굿→천왕굿(산신굿 포함)→조상굿→세존굿→성주굿→손님굿→군웅대감굿→말명굿→잔맞이→상살맞이→꽃놀이·뱃노래·등노래→거리굿
2023년	부정굿→성황굿→산신굿→조상굿→축원굿→돼지 삼지창 세우기굿→세존굿→성주굿→작두굿→눗동이굿→제면굿→꽃노래·뱃노래·등노래→거리굿

3.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 문화 가운데는 지금도 지역문화 구실을 하며 여전히 살아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한때 지역문화였지만 이제는 역사 문헌 속의 과거 문화로만 존재하는 것도 적지 않다.¹⁷ 이러한 현실에서 ‘삼척 미로단오제’는 지금도 전승되는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당면 과제는 ‘미로단오제’를 지역 행사에만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그리고 미로단오제가 지역성과 세계성을 인정받아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인받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 미로단오제와 무형문화재 정책의 정합성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드러내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 뒤인 2015년에는 유네스코 협약과 연동된 국내의 무형문화재 법안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

¹⁷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민속학연구』 23, 한국민속학회, 2008, 57~82쪽.

〈표〉 무형문화재 법령과 무형문화재의 정의

법령명	무형문화재 정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61호, 1962. 1. 10. 제정)	제2조(문화재의 정의)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5719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전부개정)	제2조(정의)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49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2.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015년에 개정된 무형문화재법에서 주목할 것은 이전과 달리, ‘무형문화재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¹⁸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특정 기·예능에 집중된 ‘전승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무형문화재라도 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개정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그 무형문화재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이것은 “일상생활 문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통”과 “여러 세대에

18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5.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¹⁹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의 가치는 “특정 대상을 정하여 연행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학술적 전통 안에서 각 연행들에 관해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연행과 연행의 전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지닌 문화유산’, ‘지속성을 지닌 문화유산’, ‘지역공동체의 문화유산이면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갖춘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미로단오제는 “삼척 미로면 지역에서 단오 때가 되면 진행되는 연례 행사”로만 그 의미가 부여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고을축제, 강원도 읍치 제의의 성격, 지역 축제, 지역 수호신인 서낭당, 공동체 의례 등과 같은 복합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징”이 복합된 미로단오제의 특징이 부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미로단오제가 지닌 역사-전통성, 지속성, 보편성과 특수성 등의 측면에서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해야만 한다.

3.2. 미로단오제의 역사-전통성: 오금잠제 및 지역 민속 행사의 고형^{圖形}

조선시대부터 강원 지역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은 강릉 지역의 강릉단오제와 삼척 지역의 오금잠제 두 가지였다. 이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조선시대 주요 문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강릉단오제만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심지어 미로단오제가 강릉단오제의 아류로 인식되고 있다.

¹⁹ 이은정, 「지역공동체 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9, 국립무형문화원, 2020, 35~61쪽.

선행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미로단오제’의 기원과 역사는 ‘오금잠제’에 있다. 오금잠제는 삼척 지역에서 행해졌던 단오굿으로, 고려 초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성황사에 모신 비녀 신격을 단오 마을굿 형태로 전승해 온 민속행사였다. 16세기 말부터 오금잠제가 삼척부사로 온 남효원¹⁵⁷⁵, 허목¹⁶⁵², 정언황¹⁶⁵³, 이지온¹⁶⁵⁵ 등에 의해 계속해서 행사가 금지되었다가도 거듭 되살아나 19세기 초까지 전승되었다. 오금잠제의 ‘오금잠신’은 단오 무렵이 되면 신사^{神祠} 밖으로 모셔져 굿판에서 신으로 대접받았다. 이를 주관한 무당들은 ‘오금잠신’의 신통력을 통해 지역민의 소망을 풀어주는 구실을 하였다. 오금잠제는 무당들이 3일 동안 대제^{大祭}를 올리는데, 호장^{戶長}이 먼저 주관하여 대금계제^{大禁戒祭}를 올렸으며 행사를 위해서 각종 금기^{禁忌} 사항 등을 엄격하게 지켰다.

삼척의 오금잠신은 오랫동안 삼척 지역 전체가 신봉하는 신이었다. 하지만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삼척 부사들은 풍속을 교화^{教化}한다는 명목으로 15세기부터 오금잠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려 했다.²⁰ 하지만 오금잠제는 지역민들의 주도로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제 오금잠제는 중단이 되었지만 오금잠제의 전통은 ‘삼척 기줄다리기’ 행사로, ‘미로단오제’로 살아남아 단오의 원형이자 고�형^{固形}의 문화적 유전자로 보존되어 내려온 것이다.²¹ 따라서 미로단오제는 이러한 전통에서 설명되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부각되어야 한다.

한편, 미로면 지역에는 산맥이와 천제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행해지

20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오금잠에 대한 기록을 살핀 후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오금잠은 단지 하나만 있을 뿐인데, 부사 김효원은 불 속에 던졌고, 정언황은 석실에 가두었으며, 허미수는 그 일을 기록했고, 정조 때 체제공은 여전히 그 음사를 보았다. 대개 그 유래가 길고 사람들이 믿고 받드니 정부나 관에서도 비록 이를 제거했음지라도, 떠난 뒤에 다시 제사하였던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능화, 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창비, 2008, 419쪽.

21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2008.

고 있다. 전자는 매년 봄이나 가을철에 특별히 날을 받아 조상신을 모시고 집안 대대로 정해놓은 산의 나무 아래 제단으로 가서 산신, 조상, 삼신, 군웅 등 여러 신께 가족과 가축들의 무사안녕과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산맥이의 전통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삼척 지역의 두 곳에서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후자는 현재 미로면의 내미로리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천제봉 정상에서 천제를 통해 마을의 액운과 역질을 방지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것 또한 미로면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이다.

이처럼 미로면에서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마을굿 또는 동제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며, 다양한 지역 축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로면의 문화 전통 속에서 지금도 운영되는 것이 바로 미로단오제이다. 특히 미로단오제는 농사를 기반으로 한 내륙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삼척 내의 해안가에서 진행되는 근덕면 교곡^{다리실}의 단오굿, 초곡리의 단오굿과 변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로 단오굿은 삼척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 동제의 원형이자, 1000여 년의 세월 동안 운영되어 왔던 삼척 ‘오금잡제’의 원형인 것이다.²²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3.3. 미로단오제의 지속성, 지속성 확인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기, 한국전쟁 시기,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의 각 도나 시·군 이하 단위의 자료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그나마 남은 자료들은 소홀하게 취급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많

²² 오금잡제는 1993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오금잡놀이로 재현되었고, 이후 삼척 오금잡제 별신굿 보존회가 만들어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에도 ‘오금잡제’가 거행되었다.

았다. 강릉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존재하지만, 그 밖의 강원도 지역은 남아 있는 자료 자체가 거의 없다. 미로단오제의 유구성, 지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로단오제의 관련 기록의 발굴 및 확인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로단오제 자료의 확인과 축적은 미로단오제가 지속성을 갖고 현재까지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은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시행되었던 미로단오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유형문화재는 비교적 자료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재는 사라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기록해야만 한다.

미로단오제를 이어오던 지역민 가운데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거나, 주관하는 무인^{巫人}의 연세가 많아 시연이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로단오제를 영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이를 아카이브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은 기록 중에서 미로단오제의 운영 시기에 대한 탐색은 앞서 밝힌 것처럼 “최분옥^{여, 1927년생, 별호: 부영이} 무와 그의 제자 무^巫”들이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영이 무당 최분옥은 1927년생으로, 그는 구술을 통하여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미로단오제를 보았고, 무당이 된 1930년대 후반부터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60년대부터 미로단오제가 진행되어 왔다”고 증언했다. 이런 점을 증거 삼는다면, 미로단오제는 적어도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미로단오제의 지속성과 역사성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구축된 미로단오제 관련 기사나 관련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강원일보』와 『강원도 민일보』에 수록된 미로단오제 관련 기사이다. 두 신문사의 자료는 1990년대 이전의 기사는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 자료가 구축되면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기사는 더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수록된 미로단오제 관련 기사

일시	구분 및 표제	기사 내용
1999.08.11	『강원일보』 미로단오제 내일 개막. 200년 전통의 마을행사	음력 5월 5일, 미로면 하거노리 성황당에서 서낭굿 시작. 오후 8시까지 개인 치성굿. 굿당 주변,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대회, 기줄달리기, 척사대회 등 다양한 민속행사 진행. 미로단오제는 원초적 종교성이 강하게 남아있어 삼척 관내의 고대 제의 전승 양상이나 산메기 별신굿 등 민속의 원형을 이해하는 중요한 무형문화제로 학계의 주목. 대부분의 단오 서낭굿이 어촌지역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데 비해 미로단오제는 풍년을 기원하는 전국 유일의 농촌지역 단오제
2001.06.23	『강원일보』 200년 전통 미로단오제 불거리 풍성	24일부터 27일, 오십천 둔치와 하거노리 성황당에서 개최. 전야제(공연과 불꽃놀이), 하거노리 성황당에서의 단오굿, 오십천, 오십천 둔치에서의 씨름, 널뛰기, 줄다리기, 윷놀이 등 민속행사 진행.
2002.06.13	『강원일보』 미로단오제 내일 개막	제1회 미로 단오문화제, 14~15일, 미로면 오십천 둔치 및 하거노리 성황당. 올해 처음으로 문화축제로 승화. 14일 전야제 시작. 오십천 미로둔치 특설무대(예총삼척지부, 국악협회시지부, 미로풍물놀이보존회 공동 축하공연) 15일 오전 7시부터 하거노리 성황당에서는 무속인 7명이 출연하는 단오굿 시작. 오전 10시 오십천 둔치 광장 각종 민속경기 및 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2004.06.23	『강원일보』 삼척 미로단오제	삼척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06.05.31	『강원일보』 미로단오제 오늘 개막	오전 8시부터 미로 성황당 및 미로초교 운동장 진행. 단오굿에는 무녀 10명이 동원되고, 생기 맞는 제판 3명이 선정돼 굿을 주도·주관할 예정. 미로면 하거노리 4리 숯성황신을 모시고 와 하거노리 암성황신과 조우를 시켜 해질 때까지 본격적인 굿이 시작.

일시	구분 및 표제	기사내용
2007.06.19	『강원일보』 동정 6.19	19일 미로서낭당 및 미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미로단오제·면민축제
2007.06.19	『강원도민일보』 삼척 미로단오제 오늘 개최	삼척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08.06.06	『강원일보』 삼척 미로단오제 행사 풍성	영동 남부권의 유일한 단오 불거리. 8일 오전 6시부터 하거노1리 미로성황당과 미로초교 운동장에서 개최. 미로 단오굿은 100여 년 전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 풍년 농사를 기원. 무녀 10명이 동원되고, 생기 맞는 제관 3명이 선정돼 굿을 주관. 미로면 하거노4리 수성황신을 하거노1리 암성황신으로 모셔 두 신을 만나게 한 뒤 해질녘까지 신명 나는 굿판을 펼친다. 오전 10시부터 미로초교 운동장에서는 단오 문화제를 축하하는 기줄다리기, 단오 줄넘기, 제기차기, 팔씨름, 게이트볼 대회가 펼쳐진다.
	『강원도민일보』 삼척 미로단오제 구경 오세요	삼척 미로단오제는 원년은 알 수 없으나 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 단오.
2009.05.28	『강원일보』 삼척 미로단오제 개막	강원 영동 남부권 유일의 단오제. 28일 오전 6시부터 미로면 하거노1리 서낭당. 미로단오제는 비록 강릉단오제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수백 년 전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 단군신과 서낭신, 토지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곳으로 영동 남부지역 유일의 단오 민속문화행사로 명맥을 잇고 있다. 무녀 10여 명과 제관 3명이 주관하며, 오전 6시 액운을 물리치는 부정굿을 시작으로 화해굿, 세준굿 등 13가지 굿판이 해 질 녘까지 행해진다. 또 하거노 1리 체육공원에선 미로문화체육회장이 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2010.06.17	액운은 물리치고 자손 번창 기원 하네	삼척시 미로면체육회가 주최하고 미로단오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미로단오제는 삼척 오금잡연구회 이옥선 씨를 비롯한 무속인들이 액운을 물리치는 부정굿을 시작으로 수서낭신과 암서낭신을 만나게 하는 화해굿,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세준굿 등 14가지 굿을 선보였다. 이날 미로면 하거노1리 체육공원에서는 미로면 게이트볼회 주관으로 노인 게이트볼 7개팀과 생활체육 3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삼척시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 미로단오제는 100여 년 전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면면히 이어져 영동 남부지역의 유일한 단오 민속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일시	구분 및 표제	기사 내용
2012.08.30	삼척 '미로단오제 · 산맥이 천제' 우수 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하는 '2012 작은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사업' 삼척시 미로단오제 우수축제사업에 선정. 미로단오제는 100여 년 전부터 매년 음력 5월 5일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 풍년을 기원하는 영동 남부지역의 유일한 민속문화 행사로 13가지의 굿을 행한다.
2014.06.02	동해 삼척 태백 2014년 6월 2일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17.05.30	삼척 미로단오제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18.06.18	오늘 삼척 미로단오제 미로면 하거노1리 일대	18일 오전 7시 미로면 하거노1리 서낭당 주변에서 개최. 단오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골말 서낭당에서 할아버지 서낭을 둔점 서낭당으로 모셔와 할머니 서낭과 함께 1년간 지역에 올 수 있는 각종 액을 막고 풍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단오굿을 시작으로 투호던지기, 그네뛰기, 창포 머리감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삼척 미로단오제 풍년·지역화합 기원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19.06.07	오늘 미로단오제	오전 7시부터 미로면 하거노1리 서낭당 주변에서 열린다. 단오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골말 서낭당에서 할아버지 서낭을 둔점 서낭당으로 모셔와 할머니 서낭과 같이 모셔 한 해 동안 갖가지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 1,000여 명이 참석해 단오굿을 시작,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진행
	삼척 미로단오제	미로단오제 사진 수록
2022.05.31	삼척 미로단오제 오는 3일 개최	삼척지역 단오제의 명맥을 잇는 미로단오제. 오전 7시부터 미로면 하거노1리 성황당(면사무소 뒤) 일대에서 개최. 미로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양기가 최고로 충만한 단오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골말 성황당(현 하거노4리)에서 할아버지 성황을 둔점 성황당(현 하거노1리)으로 모셔와 할머니 성황과 같이 모셔 1년간 지역에 올 수 있는 각종 액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며 주민화합을 위해 매년 열고 있다. 행사는 12거리 단오굿이 진행되며, 오전 10시 개회식. 또 미로면민의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제9회 미로면민 화합한마당 잔치 진행.

미로단오제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

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아카이브 구축에 소홀했다. 이것은 비단 미로단오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삼척오금잠제 학술세미나가 삼척문화원 강당에서 ‘삼척지역 단오 전통과 오금잠제’라는 주제로 마련되어, 150여 명이 세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오금잠제의 계승·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²³ 그러나 진행되었던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이라도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기사를 구축해야만 한다.

3.4. 미로단오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미로단오제는 고을 축제이면서 조선시대 읍치 제의의 전통을 지속한 행사이다. 미로단오제는 일제강점기부터 연행되었지만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를 발굴·지정하는 공식적인 통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미로단오제는 강릉단오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제의와 무당굿의 종교적 의례를 기반으로, 가면극과 단오민속놀이, 난장(亂場)이 합쳐진 전통 축제이다. 음력 4월 5일 신주 빚기로 시작으로, 음력 4월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신을 맞이하는 영신제를 거쳐, 음력 5월 강릉 시내 일대를 중심으로 단오행사가 펼쳐지고, 밤에 국사성황신 송신제와 소제(燒祭)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강릉단오제의 절차는 오금잠제와 미로단오제에서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미로단오제와 견주어 볼 수 있는 그 밖의 단오제로 ‘경산 자인 단오제’가 있다. 경산 자인 단오제에서 주목할 것은 이 역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경산에서는 제일 먼저 보존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²³ 삼척시청의 2019년 6월 4일자 보도 자료 참조.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

했다. 여기에서 매년마다 시행되는 단오제의 연행을 기록화하고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여러 차례 걸친 노력 끝에 ‘경산 자인 단오제’는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라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미로단오제는 경산 자인 단오제에 비해서 유구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면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로단오제를 앞서 언급한 두 단오제와 비교하면, 연행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단오제의 진행 절차, 성격, 내용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미로단오제는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도 강원도 지역, 동해안 지역의 무가와도 맥이 닿아 있고, 동제洞祭, 서낭제와 결합된 독창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미로단오제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미로단오제의 단오굿이 일회성 행사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제의이자 민속놀이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미로단오제가 10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오금잠제의 역사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현재 확인된 미로단오제의 역사는 100여 년이 넘어 문화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 미로면 일대에서 시행되는 각종 민속 행사와 연계된 전통이란 점을 종합하여, 삼척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가 미로단오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지역의 단오 세시 풍속, 동해안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 동제, 삼척의 대표 행사였던 오금잠제, 그리고 미로면에서 행해지는 산뱃이와 천제天祭 등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미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미로단오제가 단지 삼척 지역만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단오 행사이자 세계적으로도 중

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삼척 지역은 곳곳에 부군당, 산신당, 도당 등 다양한 민속 문화 자원이 있다. 이곳에서는 무당굿 또는 유교식으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무형문화유산은 삼척의 역사적 특성, 지리적·환경적 특성 속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본연의 색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전래되어 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세대 간 전승, 재창조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과 양식이 무형유산이 되기 위해서 전승성이 유지되어야 함과 동시에 공동체와 전승자의 창조적 역동성 또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미로단오제는 이러한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로단오제는 1990년대부터 행사를 주관한 무속인 김종식 선생이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행사를 주관해 왔다. 현재는 고향할 정도의 본격적인 무당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 행사를 오랜 시간 운영해 온 실기의 보유자들을 지금이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인멸될 우려가 있다. 지금이 바로 미로단오제를 중요 무형문화유산으로 부각시킬 최적의 순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4. 결론

이상 2023년 치러진 삼척시 미로면 미로단오제의 행사 개요 및 절차, 의미를 살피고, 그것이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2023년 미로단오제는 기존에 하루 일정으로 열렸던 것에서 더 나아

가 이를 일정으로 규모를 확장해 치러졌다. 이는 미로단오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무_{主務} 김종식 무당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무녀_{巫女}와 악사_{樂士}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부정굿 → 성황굿 → 산신굿 → 조상굿 → 축원굿 → 돼지 삼지창 세우기굿 → 세존굿 → 성주굿 → 작두굿 → 뚝동이굿 → 제면굿 → 꽃노래·뱃노래·등노래 → 거리굿”의 순서로 치러졌다. 본 행사 이외에도 씨름,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각종 체험 부스, 가요제 등의 부대 행사를 마련하여, 마을 주민 및 관람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2023년의 미로단오제는 기존에 비해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층 풍성해진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오굿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단오굿과 부대 행사와의 조화, 진행상의 미비점 등 몇몇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한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미로단오제가 지니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미로단오제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동해 지역의 주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이를 지역 행사 차원에만 머물러둘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공인을 받도록 하는 작업 또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정으로서, 현행 무형문화재 정책과의 정합성 고찰, 오금잠제 및 지역 민속 행사와의 관계성 탐색, 미로단오제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논의를 통해, 동해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미로단오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나아가 이를 무형문화재로서 자리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 34,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2020.
- 윤동환, 『삼척 단오굿』, 삼척시립박물관, 2018.
- 이능화, 서영대 역, 『조선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창비, 2008.
- 이은정, 「지역공동체 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경산자인단오제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9, 국립무형문화원, 2020.
- 이창식, 「단오굿 놀이에 대하여」, 『실적문화』 5, 삼척문화원, 1994.
- _____,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2008.
-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민속학연구』 23, 한국민속학회, 2008.
- 정상우, 「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5.

2. 기타자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

Abstract

The Present State and Cultural Property Value of “Miro Dano Festival” in Samcheok

Choi, Youn^{*} / Chung, Yong-gun^{**}

This thesis examines the event outline, procedure, and significance of “Miro Dano Festival” in Miro-myeon Samcheok-si held in 2023, and examines its cultural property value.

The 2023 Miro Dano Festival was expanded to a two-day schedule, going further from the previous one. This reflected the will of the local people who hope that the Miro Dano Festival will become a representative festival in the region. The event was led by a total of 11 shamans(巫女) and musicians(樂士), including Kim Jong-sik, the main shaman. In addition to the main event, additional events such as folk games, experience booths, and song festivals were organized to attract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villagers and visitors. As such, 2023 Miro Dano Festival was more expanded in size and content than before,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reas that needed to be supplemented at several points, such as guidance on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Dano-gut, harmony with Dano-gut and additional events, and deficiencies in the progress.

Next, this thesis discusses the cultural property value of Miro Dano Festival. It is a maj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ast Sea region that has been handed down so far, and its meaning is considerable.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main at the level of local events, but also to carry out the work of obtaining public recognition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Korea. As a process of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it, this thesis proposed an examination of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a search for the relationship with Ogeumjam Festival and local folk events, and the necessity of archive work on Miro Dano Festival.

Keywords Dano Festival, Samcheok-si, Miro-my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geumjam Festival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